

# 보도자료

수신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및 시민사회단체
발신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담당	창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010-6631-0114, <a href="mailto: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a>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4948-6637, <a href="mailto: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a>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브리핑
발송일	2020년 05월 16일(토), 총 6매

## [보도자료]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브리핑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지난 5월 7일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 집단감염 상황과 관련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정보제공 및 검진을 독려하고, 방역당국과 소통하고자 5. 11. 출범하였습니다. 대책본부는 현재 총 20개의 단체(5월 16일 기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대책본부는 출범 이후 일주일 간 △ 인권침해 상담 △ 커뮤니티 대상 홍보 △ 방역당국과의 소통 △ 언론대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그간의 활동과 향후 계획을 정리하여 브리핑을 공유합니다. 이후로도 매 주말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 첨부 :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브리핑 자료

#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브리핑

## 1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조직 현황

□ 현재 총 20개 단체로 구성됨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명동,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총 20개 단체, 2020년 05월 16일 기준)

□ 대책본부에서는 상황실을 설치, 매일 관련 상황 점검 및 실무 진행

## 2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 대책본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그 중 주요 상담 건에 대해서는 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필요시 공공기관에 연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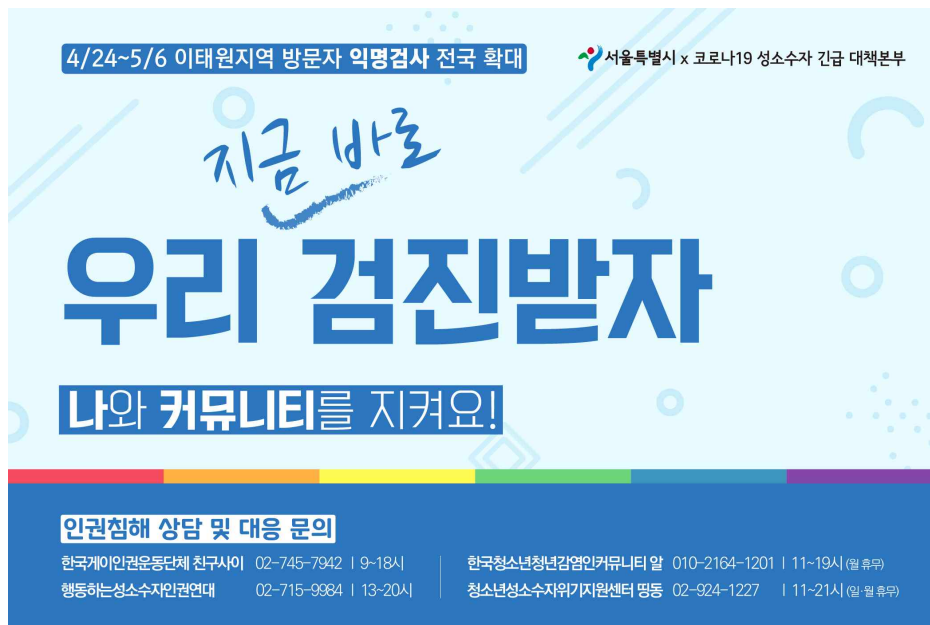
○ 상담창구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09~18시)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시)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시/월 휴무)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 02-924-1227 (11~21시/일, 월 휴무)

○ 현재까지 상담 내역은 총 약 90건, 주요 내용은 △ 자가격리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 △ 직장 등에서의 아우팅 우려 △ 검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3 커뮤니티 대상 홍보

-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해 자가검진 독려, 인권침해 상담 안내, 검진관련 정보를 담은 광고 배포
  -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웹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총 6곳)에 배너 광고 배포 진행중
  - 대책본부 소속 각 단체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홍보 예정
  - 외국인 대상 (영어, 일어, 중국어)로도 배포할 예정에 있음
  
- 대책본부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음, 대책본부 차원의 캠페인, 코로나19 관련 FAQ를 제공하고 상담게시판 운영.



<홍보 이미지>

<b>4</b>	<b>언론 대응</b>
----------	--------------

- 언론 인터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상황에 맞추어 응대 중에 있음. 현재는 주로 외신의 연락이 들어오고 있음
  
-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악의적 보도를 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항의전화, 공문발송, 언론브리핑** 등의 대응을 하고 있음. 현재까지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날짜	대상 기사	대응	답변 및 조치
5/13	<매일경제>, [단독] 이태원 이어 종로 男성소수자 모임 장소'서 확진자 급증...정부 집합금지명령 '구멍'」	항의전화 및 메일	사과메일 및 기사 수정(제목 변경, 업소명 삭제)
5/14	<충청타임즈>, 「이태원 코로나로 불거진 에이즈환자 관리, 허점」에 부쳐」	항의전화 및 메일	지역 보건소와 소통 예정
			5. 13. ~ 14. 기사들에 대한 모니터링 논평 및 커뮤니티 대상 메시지 발송
5/15	<엠빅뉴스> 「성소수자 수명방 관련 영상」	항의전화 및 공문 발송	영상 삭제 및 답변: 자극적인 편집을 인지함을 확인했으며, 해당 영상을 모든 플랫폼에서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답을 받음. 더불어 MBC로부터 성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인권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며, 겸허히 여론을 수용하고, 더욱 발전적인 뉴스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받음.

5/15	MBC 뉴스외전, 더불어민주당 SNS 메시지, 강경화외교부장관 인터뷰 당시 발언 문제 등	언론브리핑	
------	---	-------	--

#### 4    **방역당국과의 소통**

현재 서울시, 경기도와 면담 진행했음. 인천시와도 면담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시**

- 5월 11일 면담 진행
- 이태원 지역 방문자 검진 시 HIV를 특정해서 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시정 지침 내려짐
- 재난문자에 과도한 정보를 담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지속적 추진
- 재난 문자 관련, 익명검사 가능,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 강조하기로 함
- 인권침해 상담 핫라인 설치 및 운영하여 대책본부와 상호협력 통해 상담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조사와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경기도**

- 5월 15일 면담 진행
- 진료 시 성적지향, HIV 감염 여부 등 불필요한 질문 묻지 않도록 지침 발송, 재난문자에 과도한 정보를 담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추진
-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신속히 경기도 인권센터 등과 공유하도록 함
- 방역당국 브리핑 시 인권침해 예방, 차별반대 메시지 발송 추진

#### 5    **향후 계획**

외국인 강사,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도 상담이 들어오고 있음, **다국어로 메시지를 작성하여 배포** 예정

- 2주 자가격리가 종료된 후 직장에 복귀 시 괴롭힘, 퇴사 압박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정부에 인권침해 예방 메시지 발송하도록 요구하고, 실제 침해 발생 시 대책본부에서 대응 예정
  
-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단체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